



## 금융청, 공식 집계 결과 지진보험금 지급액 1.8조엔 발표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의 금융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공제회사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액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조 8,000억엔이 지급된 것으로 7월 19일 공식 발표함.
  - 이와 함께 향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금액을 포함할 경우 총 지급액이 약 2조 7,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.
  - 7월 7일까지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보험금 지급액은 1996년 한신고베 대지진 발생 시의 보험금 지급총액 2,000억엔의 9배 규모에 달하는 수준임.
- 보험종목별로는 지진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가장 많고, 다음으로 생명보험, 기업성 손해보험, 공제부문의 순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.
  - 구체적으로는 지진보험이 9,700억엔으로 업계가 당초 예상한 1조 500억엔을 하회하였으며, 생명보험의 지급액은 900억엔으로 당초 예상액 2,000억엔을 하회함.
    - 생명보험 지급액이 당초 예상한 금액의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실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임.
  - 또한, 기업성 손해보험은 지급액이 700억엔으로 당초 예상한 6,000억엔을 현저하게 하회하였으며, 농협공제 및 전국노조공제 등의 공제 지급액은 6,000억엔으로 예상액 9,000억엔을 하회함.
- 지역별로는 생명보험금이 대지진 피해지역에 미야기현에 592억엔, 이와테현에 209억엔, 후쿠시마현에 85억엔 지급되었으며, 지진보험금은 미야기현에 5,030억엔, 후쿠시마현에 1,365억엔, 이바라키현에 1,340억엔이 지급됨.
  - 보험금 지급건수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각각 9만 4,449건, 105만 3,653건이 발생함.
  - 한편, 지진보험 가입은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약 3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.2% 증가함.

(마이니치신문 7/19, 산케이신문 7/20, 요미우리신문 7/20 뉴스 종합)